

# 희망을 버리지 말자



최준구 본회 회장

2007년 정해년(丁亥年)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재 발하면서 새해의 기쁨보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하게 되어 아쉬움이 앞섭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고병원성 SI 발생 이후 방역당국의 일사불란한 방역활동을 보여주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SI를 퇴치할 수 있었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4, 2005년 겨울을 SI발생없이 지내오면서 이제는 SI가 양계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질병으로 간주하고 느슨하게 대처해 왔던 탓은 아닌지? 아니면 SI는 앞으로 우리곁에 영원히 끼고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철새가 되돌아가는 금년 2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2차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여주었듯이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대처해 간다면 SI는 우리에게 전혀 두렵거나 문제가 되는 질병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이어 최근 고병원성 SI가 발병했을 때에도 언론 및 기타 주변 상황들이 2003년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발생보도를 내보내주면서도 소비위축을 우려해 소비홍

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방영해 주는 노력도 있었지만 발생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운 나머지 소비하락에는 무방비상태였습니다.

미국 타임지에서는 Si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독감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Si로 사망한 사람은 한명도 없는 반면, 일반 독감에 따른 사망자 수는 매년 3만6천명이나 되기 때문에 확률이 적은 비행기 사고의 두려움과 같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공포에 떨고 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작은 사실을 과장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 너무나 기대이상의 관심과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한 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잉보도와 선입견으로 인해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나 대형 급식소에서는 식단에서 아예 닭고기와 계란을 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대국민 홍보(공익광고 등)에 정부가 나서주어야 할 때라 보여집니다. 이는 이번뿐 만 아니라 차후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북 익산과 김제, 아산 등 3개 지역 4개 농장에서 HPAI가 발생되고 있으며, 추후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주 확산요인이 오리에 의한 전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리는 고병원성 Si에 감염되더라도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종란 이동 등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발병은 메추리까지 확대되었고 종오리까지 감염확인이 됨으로써 양계업계를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던 농장이기 때문에 다소 안심이 되고있습디만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없이 하루빨리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본회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아픔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HPAI가 발생한 이후 양계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복되기까지 약 60일이 흘러야 했습니다. 한달 후 3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마지막 발생이 있었을 때에도 닭고기는 15일, 계란은 30일 후에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소비에 국민들이 관심을 보일 때 조기에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면 3월 21일이면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농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상 닭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이나 본회에 신고해야 하며, 언론매체에서는 Si와 관련된 보도를 최대한 자제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양계업계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함께 Si퇴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때 2007년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정해년(丁亥年)은 돼지해입니다. 돼지는 우리들에게 복을 불러들이는 동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 한해 아무일 없이 복이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양계인 및 관련인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고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계